2008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부치는 인사말

박영흠 본재단 이사장

재단이 1999년 창립된 이래 해마다 비영리활동 그 결과를 엮어 내는 '연차보고서'를 2007년도의 이야 같은 해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사업결과 보고를 하게 된 것은 아직 생소하지만 그 시기가 참신해서 바람직하다.

오래에 걸쳐 사회운영체의 제3영역인 비영리 공익단체나 기관들에게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더욱 강조하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경영원리는 우리 비영리단체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알게 모르게 경영학의 영리기업의 기업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이다.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향하고 있는 윤리및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혁신경영, 창조경영 등의 지속가능경영원칙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야 하는 한국에서재단을 비롯한 사회단체를 위한 여성운동에 서 더욱더 사회적 책임을 위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단체 들도 적극 수용해야 하는 운영원칙이다.

최근들어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한파에 덧붙여서 경부가 앞으로 지리고 있는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기여를 과소평가하거나 잘못된 인식으로 파생된 문제들로 현재 존립의 위협에 처해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들이 발휘해야 하는 능력이 바로 지속가능경영원칙들이다.

재단은 그의 기본기능인 모금과 배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끊임없이 새로운 방안 모색과 획득한 우수한 노하우를 기초로 한 백서는 머리가 못해서 바로 지속가능경영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

재단의 2008년도의 경영목적을 살펴보면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하기 위한 갈등을 더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의 질적 양적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추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 기울인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의 재정확보 및 사업추진자 모두가 이해는 더이상 정치투쟁적인 일회성사업에서 벗어나서 사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2008년도의 보고서의 내용을 알차게 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

더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당면하는 문제는 더이상 질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재단의 단체들은 잘 해결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곳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게 된 우리는 점에서 이다. 현재 사업들의 상생의 공존해 의식은 자기 중심이 아니다.

지금이야 말로 재단의 단체들이 지속가능경영원칙을 살려서 희망의 싹을 키워 종래의 위기의 터널을 함께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